

문화재청 공고 제2019-9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누락본) (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漏落本))	7책	국 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효종실록) (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孝宗實錄))	1책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3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赤裳山史庫本)	4책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4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朝鮮王朝實錄 奉謨堂本)	6책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 (朝鮮王朝實錄 落帙 및 散葉本)	78책 (낙질본:65책, 산엽본:13책)	국 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국보 제151-4호	국보 제151-6호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朝鮮王朝實錄 其他散葉本)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 (朝鮮王朝實錄 落紙 및 散葉本)	21책 (낙질본2책, 산엽본19책)	99책 (낙질본67책, 산엽본32책)	조선왕조실록 추가 지정(78책)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변경

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	1,181책	1,187책	기 지정수량 오류 정정 (1,181책→1,180책) 및 누락본 추가 지정(7책)에 따른 수량 변경
2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	74책	75책	환수문화재 추가 지정 (1책)에 따른 수량 변경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1767호 (2012.6.29.)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扶餘 王興寺址 出土 舍利器)	1건 3점 (청동제사리합 1, 은제사리호 1, 금제사리병 1)	국유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龜尾 大菴寺 三藏菩薩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2	김천 직지사 괘불도 (金泉 直指寺 掛佛圖)	괘불 1폭, 복장유물 (복장낭, 후령통, 봉합지, 묘법연화경 권1, 다라니), 괘불함 1점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3	도은선생시집 권1~2 (陶隱先生詩集 卷一~二)	2권 2책	조**·조** 조**·조**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보물 제259호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장엄구 (南陽州 水鍾寺 浮屠 舍利莊嚴具)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사리장엄구 (南陽州 水鍾寺 舍利塔 舍利莊嚴具)	보물 제2013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과 지정명칭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사. 지정 예고 및 변경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조선왕조실록(정족산사고본 누락본, 오대산사고본 효종실록, 적상산사고본, 봉모당본, 낙질 및 산엽본)  
(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 漏落本, 五臺山史庫本 孝宗實錄, 赤裳山史庫本, 奉謨堂本, 落帙 및 散葉本)

○ 지정현황 : 비지정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누락본) (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漏落本))	7책	국 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2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효종실록) (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孝宗實錄))	1책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3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赤裳山史庫本)	4책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23
4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朝鮮王朝實錄 奉謨堂本)	6책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23
5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 (朝鮮王朝實錄 落帙 및 散葉本)	78책 (낙질본:65책, 산엽본:13책)	국 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규 격 : 다양함
- 재 질 : 장지(壯紙),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활자본[갑인자, 을해자, 실록자(실록자, 선조, 인조, 효종, 현종)]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전기 및 후기

## ○ 사 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조선 철종(哲宗)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編年)으로 정리한 책이다. ‘성종대왕실록(成宗大王實錄)’처럼 왕의 묘호(廟號)를 붙인 서명으로 간행 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이라고 통칭한다. 완질은 1,717권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다. 완성된 실록은 재난에 대비하고자 춘추관사고(春秋館史庫; 서울),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 강화),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 봉화),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 평창),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 무주)의 전국 5대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문화·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망라되어 있으며,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 12월31일 국보 제151호로 정족산사고본 1,181책(제151-1호), 태백산사고본 848책(제151-2호), 오대산사고본 27책(제151-3호), 기타 산업본 21책(제151-4호), 도합 2,077책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도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2006년에는 일본 동경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을 기증함으로써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된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 또는 신규 지정 예고 대상인 비지정 실록의 소장(관리)기관과 책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8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9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책,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책 등 모두 96책이다. 이 96책은 1973년 처음 국보로 지정할 때 누락된 실록과 지정 이후 환수 또는 구입한 것이다.

비지정 실록 96책의 계통과 특징을 구분하면, 정족산사고본 7책, 오대산사고본 1책, 적상산사고본 4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업본 78책 등이다. 이 중 정족산사고본 7책은 『성종실록』 7책(갑인자본)이다. 이 7책은 처음 국보로 지정할 때 누락된 것으로, 국보 제151-1호에 편입시켜야 할 대상이다. 오대산사고본에 추가되는 『효종실록』은 2018년도에 일본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서 권수제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관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정 예고 대상 실록 중에는 기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적상산사고본(赤裳山史庫本) 4책과 봉모당(奉謨堂本) 6책이 포함되어 있다. 적상산사고본은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유출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전할 뿐 현품은 물론 실상 또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적상산사고본은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의 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3책 등 모두 4책이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5년에 공개 구입한 1책(『광해군일기』 권55~58)은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소장인이 찍혀 있어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임을 알 수 있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국내에는 4대 서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본이 완질 또는 일부 소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봉모당(奉謨堂)은 정조 때 규장각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역대 국왕의 어제어필(御製御筆), 선원록(璿源錄), 국조보감(國朝寶鑑) 등 왕실자료를 보존하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실록부록 6책을 일컫는 것으로 모두 권수제면 우측 윗부분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다.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조선 후기에 어람용(御覽用) 실록을 특별히 제작해 창덕궁 후원 봉모당에 보관 관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왕조실록 제작 전통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타 산업본’은 일부가 국보 제151-4호로 총 21책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예고 대상에는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과 더불어 산업본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업본’은 총 78책(낙질본: 65책, 산업본: 13책)으로, 낙질본은 실록의 중간본(重刊本)이 다수이고 산업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落張)을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낙질 및 산업본 모두 실록 중간본의 오류수정과 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듯 추가 또는 신규 지정 예고된 조선왕조실록은 손실을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 수정과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총체적인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를 남김으로써 후대에 개관적인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진실성, 투명성, 신빙성이 탁월하여 국보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 □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扶餘 王興寺址 出土 舍利器)

- 현 지정현황 : 보물 제1767호(2012.6.29.지정)
- 명 칭 :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扶餘 王興寺址 出土 舍利器)
- 소유자(관리자) : 국 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건 3점(청동제사리합 1, 은제사리호 1, 금제사리병 1)
- 규 격 : 사리합 높이 10.3cm, 사리호 높이: 6.8cm, 사리병 높이: 4.6cm
- 재 질 : 청동, 은, 금

○ 조성연대 : 577년(백제 위덕왕 24)

○ 사 유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2007년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리기이다. 부여 왕흥사지(王興寺址)라는 출토지가 분명하고 청동제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577년(위덕왕 24)에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절대연대가 확실할 뿐 아니라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문헌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당 유물은 백제 사비시기 위덕왕(威德王)에 의해 제작된 왕실 공예품으로서 공예사적 가치가 높으며, 죽은 왕자를 위해 발원된 기년명(紀年銘) 사리장엄구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공예사적인 측면에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전반적인 형태와 세부 구조물을 주조하고 접착한 기법과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등에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백제 장인의 숙련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단순하고 단아한 형태와 보주형(寶珠形) 꼭지, 그 주위를 장식한 연꽃문양 등을 통해 525년 조성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銀製托盞) 등의 영향을 받아 7세기 전반 미륵사지 사리기에 조형적으로 영향을 끼친 6세기 후반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유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절대 연대 및 백제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제작 사리기라는 희소성, 우리나라 공예 및 조형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지정 예고】

### □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龜尾 大菴寺 三藏菩薩圖)

○ 명 칭 :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龜尾 大菴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 수 량 : 1폭

○ 규 격 : 238.0×279.0cm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나무액자

○ 조성연대 : 1740년(영조 16)

○ 사 유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에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제석도(帝釋圖), 현왕도(現王圖), 아미타불도(阿彌陀佛圖)와 함께 구성되어 대둔사에 봉안되었던 작품으로, 이 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제작에는 월륜(月輪), 치흠(致欽), 우평(雨平)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직지사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이었다는 점에서 고유관계와 양식의 전승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세로 238cm, 가로 279cm의 대규모 화면에 천장보살(天藏菩薩)과 지지보살(持地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등 세 보살의 모임을 묘사한 그림으로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높은 수미단(須彌壇) 위에 걸가부좌한 세 보살과 각각의 권속이 질서 정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이 삼장보살도는 1661년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 근거하여 18세기 삼장보살도의 새로운 도상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가치가 크다. 특히 16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 등 해외에 전해지고 있고 17~18세기 초에 제작된 안동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년)나 대구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년)조차 도난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18세기 전반 연대를 가진 삼장보살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필치와 안정된 구도, 적색과 녹색이 중심이 된 조화로운 색감 등에서 18세기 전반 불화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년 후에 조성된 상주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와 함께 18세기 전반 경상북도 지역 삼장보살도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불화의 조성과 관련된 화기(畵記)가 잘 남아있어, 제작시기와 참여자, 봉안장소 등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김천 직지사 괘불도(金泉 直指寺 掛佛圖)

- 명 칭 : 김천 직지사 괘불도(金泉 直指寺 掛佛圖)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직지사길 95
- 수 량 : 괘불 1폭, 복장유물(복장낭, 후령통, 봉합지, 묘법연화경 권, 다리니), 괘불함 1점
- 규 격 : 다음 표 참조

번호	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1	괘불도	1803년	마본 채색	전체 1,280×508.0 화면 1,222×481.5	1	
2	복장 유물	복장낭	1803년	종이+ 견	64.0×52.0cm	1
		후령통	1803년	비단	높이17.0, 폭9.0,	1



					밑둘레 23.0	
		봉합지	1803년	종이	10.3×7.1	1
		묘법연화경 권	조선후기	종이	전체30.4×18.4 반곽20.7×3.5	1
		다라니	1803년	종이	① 52.6×36.8 ② 60.7×36.8 ③ 60.5×36.2 ④ 30.2×37.7 ⑤ 60.4×37.6 ⑥ 25.2×50.0 ⑦ 25.7×52.0	총 122매 ①~⑤각1매 ⑥65매 ⑦52매
3	괘불함	괘불함	1646년	나무	길이590.8 높이40.6 너비43.7 두께3.3	1
합계						3건 128점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麻本彩色)
- 형 식 : 독존(獨尊)
- 조성연대 : 1803년(순조 3)
- 제작자 : 濟閑, 偉傳, 綻岑, 富添, 信和, 寫演, 快月, 德先, 德文, 志悅, 典憲, 願官, 照隱
- 사 유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에 제작된 괘불로, 현재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하고 규모도 가장 크다. 머리에 보관(寶冠)을 착용한 보살형 본존이 양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獨尊) 형식의 괘불도이다. 괘불 하단에 쓰인 화기(畫記)를 통해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권역에서 활동한 제한(濟閑)을 비롯하여 위전(偉傳), 탄잠(綻岑), 부첨(富添), 신화(信和) 등 총 13명의 화승들이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단독의 보살형의 본존을 중심으로 화면 상단에는 작게 10위의 시방제불과 5위의 보살상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이나, 앞 시기 괘불의 중량감 넘치는 형태에서 가늘고 늘씬한 형태미로 변모한 점, 섬세하고 유려한 선의 구사보다는 굵고 대담한 선묘가 돋보여 시대적 전환기에 제작된 불화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색감도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대비로 18세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다소 엄숙한 느낌이며, 일부 권속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음영법이 본존에까지 확대 적용 되는 등 시대적 미감(美感)이 반영되어 있다.

높이 12m 이상 되는 대형 불화임에도 불구하고 도상의 배치, 상·하축의 조형성, 색채감과 선묘 등 여러 면에서 19세기 불화를 대표할 만큼 우수하다

고 평가되는 작품으로, 한국불교회화사에서 19세기의 첫 장을 여는 선구적인 작품이라는 상징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도은선생시집 권1~2(陶隱先生詩集 卷一~二)

- 명 칭 : 도은선생시집 권1~2(陶隱先生詩集 卷一~二)
- 소 유 자 : 조\*\*·조\*\*·조\*\*·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권 2책
- 규 격 : 27.0×16.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癸未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07년(조선 태종 7)
- 사 유

‘도은선생시집 권1~2’는 고려말 문인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문집 5권 가운데 권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금속활자본이다. 이숭인은 고려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나라에 대한 충절(忠節)이 강해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도은선생시집’은 1406년(태종 6) 태종(太宗)이 이숭인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린 후 그의 문집을 간행하라고 명을 내리자, 변계량(卞季良)이 편집하고 권근(權近)이 서문을 지어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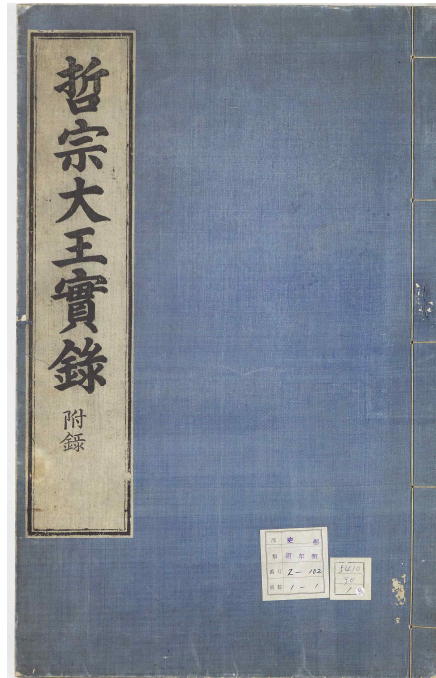
권근이 서문을 쓴 연도가 1406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주조된 1403년에서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보이며, 계미자본 인출 시 주로 주석의 글자로 사용된 계미자 중자(中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서의 권두(卷頭)는 산실되어 권근이 쓴 서문의 말미 4행만 남아있고 본문 역시 주석 없이 원문만 있는 권1~2만 수록되어 있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으나, 현존본이 극히 적은 귀중한 사례라는 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먼저 인출된 계미자본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고려와 조선 전환기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자료이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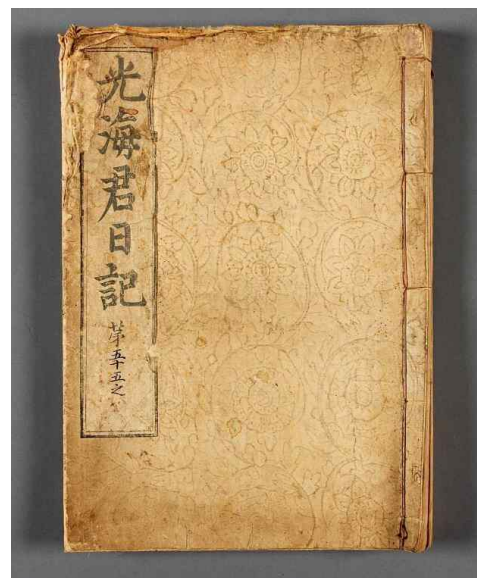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성종실록, 밀랍본)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철종실록부록, 어람용)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광해군일기)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김천 직지사 괘불도>



<도은선생시집 권1~2>